

MILAL & WORLD 7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지난 4월22일, 시애틀밀알 아카데미 장애인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St. Edward Park으로 소풍을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02 | 칼럼

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04 | 온전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나라를 완성하는 교회의 잃어버린 퍼즐, 발달장애인 예배

06 |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
하나님이 주신 다름의 아름다움

08 | 애틀랜타밀알 꿈터 오픈 감사예배
참 좋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다

10 | 유쾌한 하루
2025 워싱턴밀알 사랑의교실 연합 피크닉

12 | 밀알 천사들과의 만남
화요일에 맞는 행복

14 | 우리 이웃의 따스한 이야기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만남

16 | 아름다운 섬김
천국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밴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293호 | 2025년 7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최재휴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밴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Trees do not bear fruit right away

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전에 나무는 나무로 자라나야 한다. 성장하기 위하여, 나무는 땅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을 깊이 마셔야 한다. 햇빛 또한 충분히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도 어떤 나무는 열매를 내기까지 수년 동안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열매는 나중에 그 자체의 시간에(in its own time) 맺힐 것이다.

밀알선교단 사역은 어쩌면 다른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인 건지도 모른다. 아마도 틀림없이 영양분을 더 충분히 공급하고, 아주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햇빛과 바람도 더 잘 받도록 마음을 써야 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하는 밀알의 일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더 잘 빛어지는 축복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기독교 신앙의 삶은 즉각적인 거룩을 약속하지 않는다.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하늘을 향하여 걷는 삶은 인내를 요청한다. 한 날의 괴로움을 'suffering'으로 받아들이는 희망으로 살라고 가르친다. 이 희망은 복음 안에 있는 희망이다. 성경은 이 희망을 살아 있는 희망이라고 부르고, 영광의 희망이라고 말해준다. 이 희망은 피곤한 손과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나무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나무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마침내 열매를 낸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한다.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자기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Trees do not bear fruit right away. Before a tree can bear fruit, it must first grow into a tree. In order to grow, a tree must absorb sufficient nutrients from the soil and drink water deeply. It must also receive sufficient sunlight. This takes time. Even then, some trees must wait several more years before they can bear fruit. In this way, fruit will come later, in its own time.

Perhaps the work of Milal Mission requires more patience than other endeavors. It undoubtedly requires providing sufficient nutrients, ensuring adequate water, and ensuring that the tree receives sufficient sunlight and wind. Those who are engaged in work of Milal Mission are blessed with the opportunity to be molded into the instruments of God for His salvation.

The Christian life does not promise immediate holiness. A life of deep prayer and meditation, walking toward heaven, requires patience. It teaches us to live a life in hope, accepting the hardships of each day as 'suffering.' This hope is the hope found in the Gospel. The Bible calls the hope as a living and glorious hope. This hope lifts up our weary hands and weakened knees.

Trees do not bear fruit right away. However, the trees eventually bear their fruits long time later. The fruit testifies to what kind of tree it is. Those who live waiting for the time to bear fruits will call themselves happy and blessed people.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Galatians 6:9).

글 & 번역 | **이상현 목사** (벡쿠버밀알 단장)



하나님나라를 완성하는 교회의 잃어버린 퍼즐, 발달장애인 예배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 안에서 ‘장애인 예배’는 단순한 하나의 사역 영역을 넘어 교회 공동체가 지닌 복음의 본질과 공동체성의 깊이를 재조명하게 하는 중요한 물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누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인정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교회는 종종 함께 참여하고 싶은 곳이지만, 동시에 망설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자녀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 중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때로 주변의 시선과 오해로 이어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장애를 가진 가족과 그 자녀를 있는 그대로 환대하고, 신앙의 여정에 함께 동행할 때, 이는 단지 '선한 행위'를 넘어 복음의 핵심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져야 한다’(갈라디아서 6:2)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마태복음 18:5)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장애를 지닌 이들을 공동체 예배에 초대하고, 그 예배의 중심에 함께 세우는 일은 단지 그들에게 맞는 예배 형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다시 고백하는 선언이요, 복음의 포용성과 온전함을 증언하는 신학적 행위입니다. 말이 서



틀고 행동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나 존귀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예배는 증거합니다. 그들의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진실한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장애인 가족을 이해하고 품을 때, 그 가족들은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움과 단절 속에 감춰졌던 수많은 아픔들이 위로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비단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기쁨과 치유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공동체입니다. 민족, 신분, 나이, 능력의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

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배,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환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며,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는 누가 서 있는가? '누가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가?'를요. 하나님 나라의 넉넉한 품을 기억하며, 모든 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중심에 함께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

하나님이 주신 다름의 아름다움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핫도그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핫도그를 받아가는 한 여성분이 제 이모와 옆모습이 너무도 닮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이모는 한국에 계신데 말이죠. 그런데 고개를 살짝 돌려 제 쪽을 바라보셨을 때, 앞모습은 확연히 달랐고, 저는 그제야 다른 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 세상 85억 인구의 얼굴을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 밀알에도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리더로 섬기고 계신데, 처음엔 정말 똑같아 보였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지닌 다른 매력 하나하나가 다가왔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니크한 특징들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손가락의 지문처럼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단어가 종종 구별 없이 사용되어, 다름이 곧 틀림으로 여겨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회 속에서 성

공과 미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대학, 직장, 외모, 연애, 결혼... 마치 동일한 기준을 향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다른 이들의 믿음의 여정과 나의 걸음들을 비교하며 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알에서 밀알러로 섬기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드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각자를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만나시는 방식도 모두 다르고, 각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또한 다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마저도 새롭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です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2025 함께걸음 콘서트(WithYou Benefit Concert)’에 합창 공연을 함께 준비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행사 이상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기회였습니다.

한세영 밀알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눈을 잠시 감고 짧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엔 모두 잘 마무리가 되어서 감사했고, 또 이런 하나님의 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경험이 되었어요.” 무대에서 함께 찬양하던 순간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관객분들의 눈빛과 긴장과 설렘이 느껴지는 밀알러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함께 합창하던 그 순간만큼은 모두 하나 되어 같은 분의 이름을 높였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걱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찬양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저를 더욱 크게 움직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두 곡을 준비하며 찬양할 때, 특히 에드윈 친구의 반짝이는 눈과 힘찬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홍사랑 밀알러)
 김윤서 밀알러도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평소 무대에 오르거나 주목받는 일을 가장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하니 그조차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세워준 팀워크와 사랑: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각 팀은 자신의 자리에서 놀라운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투게더프로젝트 팀은 상품 포장과 판매, 미디어 팀은 기록과 디자인, 찬양팀은 예배의 흐름을 이끌며, 우리 모두는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서로에게 짜증 한 번 없이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윤서 밀알러) “몸이 지쳐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홍사랑 밀알러)

회복과 성장의 여정: 많은 밀알러들은 이 시간이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닌,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감히 상상했던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을 따로 만나셔서 각자에게 맞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나 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박소울 밀알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고, 다시 그분께 집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성원 밀알러)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헌신했지만, 그 모든 순간은 하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걸작(Masterpiece)으로 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밀알 공동체가 계속해서 서로의 다름을 축복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글 | **홍사랑** (밴쿠버밀알, 2024-09밀알러)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다

2000년 1월 부터 시작한 애틀랜타밀알선교단 장애인 사역이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밀알사역에 적합한 장소 구입을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금운동을 준비하면서 메이스빌 지역 90 에이커 대지를 소개 받고 마침내 ‘밀알꿈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긴 여정에 함께 해주시며 꿈을 보여주시고 실천 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주일 오후 4시에 드디어 밀알 꿈터에서 오픈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 준비가 귀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의 축하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밀알 찬양팀의 시작으로 시작된 감사예배에 신현국 목사님의 기도와 이희양 장로님의 환영인사, 그리고 가이코오케스트라의 특별 연주가 있었습니다. 밀알 꿈터를 가득 채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더 한없이 완벽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9장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라는 제목으로 애틀랜타소명교회 담임이신 김세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였고, 애틀랜타은혜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야외로까지 펼쳐진 식사 만찬이 있었습니다. 더없이 좋은 날씨로 야외식사가 가능한 너무나도 좋은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식사 기도로 김순영 장로님이 인도해주셨습니다. 모든 예배를 순서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백승원 형제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날 꿈터 감사예배에 참석 방문해주신 모든 가정에 밀알꿈터 로고가 새겨진 우산을 선물로 증정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손미란 간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로, 식사 준비로, 세팅 준비로 수고해주신 모든 밀알 가족들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숨어 있는 모든 섬김의 손길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고도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모두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편합니다! 이 꿈터를 통해 어떻게 더 크게 역사 하실지 궁금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밀알꿈터 마련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후원자, 밀알가족 그리고 밀알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밀알꿈터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꿈터에서 펼쳐질 모든 밀알 장애인 사역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 애틀랜타밀알 홍보부



| 유쾌한 하루

2025 워싱턴밀알 사랑의교실 연합 피크닉

“반가운 얼굴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5월 7일 토요일, 매릴랜드 로럴침례교회(김성용 담임목사)에 워싱턴 사랑의교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였다. 락빌, 로럴, 맥클린 세 곳의 캠퍼스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웃음 가득한 게임과 맛있는 점심을 즐겼다.

매 학기 한 번, 모두가 기다리던 이 특별한 날은 친구들과의 반가운 재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신 선생님들의 따뜻한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 속에는 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를, 그리고 이 기억이 아이들 마음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기를 소망한다.

글 | 워싱턴밀알 홍보부







| 밀알 천사들과의 만남

화요일에 맞는 행복

화요일 아침이다. 기분이 좋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아침부터 마음이 들쭉인다. 활동하기 편한 옷(그러나 작업복은 절대 안된다. 제대로 입어야 한다)을 입고, 거울을 한 번 더 본다. 잘 보여야 할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씨익 웃는다. 그렇게 차려 입고, 아내와 집사님들과 미니밴을 달려 가는 곳은 SMA(시애틀밀알 아카데미)이다. 우선 자리를 정돈하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신다. 조금 찢~하지만 그래도 품위를 지키려면, 미소를 담아 마셔야 한다. (아니 이제는 이 찢~한 커피에 중독이 된 것 같다. 어쩐다?) 훌륭한 커피 타임이 끝나면, 친구들을 위한 기도와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봉사자 전원이 합심기도를 한다.

이윽고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키면 있는 대로 활짝 문

을 열어 젖히고, 환한 얼굴로 친구들을 맞는다. 일등은 언제나 제니다. 거의 놓치지 않는다. 살갑게 동생들을 살피는 제니의 뒤를 이어, 멋진 라이방을 쓴 데이빗이 들어오며,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목소리에 반가움이 물씬 담겨있다. 원이는 요즘 한껏 재미들인 ‘으악’으로 인사를 한다. “아이, 무서워”하며 그 인사에 나도 답한다. 현석이는 언제나 얌전히 들어온다. 하지만 180도 주욱~ 둘러보는 것으로 모든 봉사자들과 눈인사를 한다.

이제 원준이 차례다. 들어는 보셨는가? ‘엄지척 인사’... 원준이는 인사하는 봉사자들마다 엄지척을 맞대며 인사를 한다. 함께 들어온 어스틴은 SMA의 젠틀맨이다. 언제나 예의 바르다. 무엇 하나 고맙지 않은 것이 없다. 진



심을 다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마음을 전한다. 앤드류는 또 어떤가? 우람한 체격으로 성큼성큼 무게를 잡고 들어온다. 환한 미소는 앤드류의 트레이드 마크다. 얼마전부터 함께 한 막내 지원이는 누가 뭐래도 SMA 최고의 패셔니스트다. 나만큼 거울을 본다.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니니 그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거~한 인사를 우당탕 마치고, 서로의 한 주간을 소개한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좋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꼬리를 물고 드리는 찬양에 SMA사무실이 떠나갈 듯하다. 이제 ‘서얼~교’ 시간이다. 도저히 지루할 수 없는(만약 지루하다면 내가 혼내 줄 거다) 장영준 목사님의 말씀에 모두의 눈과 귀가 쏠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포인트마다 ‘아멘’이 쏟아져 나온다. 반 박자 늦은 앤드류의 ‘에이멘’은 마치 배구의 시간차 공격과도 같다. SMA는 화요일마다 부흥회다. 전 단지를 준비해야 할 정도다. ‘모이자! SMA 화요 부흥성회로!’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예수께로 가면’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지휘를 하는 데이빗과 찬양을 부

르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채 집사님이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저 아름다운 모습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밀알섬김’ 단톡방에서 나눈 집사님들의 대화를 옮긴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밀알 자매 형제님들의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오늘 저들의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찬양이 어느 찬양대의 찬양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음악시간, 미술시간, 그리고 점심시간과 체육시간이 남았는데, 내게 허락된 지면이 다해버렸다. (아니면 벌써 초과했나?) ‘화요일에 맞는 행복’을 아직 반도 못 썼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글 | 백필식 목사

(시애틀밀알, SMA 봉사자, 낮은올타리교회 담임목사)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만남

지난 4월 26일 뉴욕밀알선교단 ‘장애인의날’ 행사에서 한 편의 조용한 간증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정재은 사모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 가정은 조금 다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듯 보이는 그녀의 고백은, 그러나 곧 장애와 편견, 그리고 사랑과 연대에 관한 깊은 통찰로 이어졌다.

정 사모는 뉴욕에서 남편, 딸,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며 매달 렌트비를 내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분주한 일상을 보낸다. 언뜻 보기엔 전형적인 일반 가정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는 목회자이자 뉴욕밀알선교단 행정실장으로 사역 중이며 매일 새벽 설교하고, 운전도 하고, 가족과 여행도 떠난다. 정 사모는 “남편이 휠체어 때문에 무언가를 못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다르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남편이 저리니까 아내도 모자란 사람일 거라고 하더라.”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정 사모는 그 안에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편견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되묻는다. “남편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시선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그 일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이 속한 뉴욕밀알선교단의 친구들, 즉 장애를 지닌 지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미술치료 수업은 그녀의 사역 중 중요한 시간이다. 단순한 창작 활동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교감의 장이다. 정 사모는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 유학 시절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한다. “아트는 보여주는 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어주는 작업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

그녀의 수업은 작품의 완성보다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처음에는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던 이들도 서서히 변해갔다. 무표정이던 얼굴에 호기심이 떠올랐고 미세한 손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마침내 조심스러운 미소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자신의 그림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그림을 들고 갔다. 정 사모는 조용히 기도했다. ‘부모님이 이 그림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결과

는 알 수 없었지만 다음 주에도 그 친구는 밝은 얼굴로 수업에 참여했다. 그 것만으로도 희망이었다.

정 사모는 처음엔 멋진 작품을 만들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방향이 바뀌었다. 더 나은 결과물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와 사랑이 이 수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친구들은 점점 더 용기 있게 자신의 감정을 색과 선, 형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발표 시간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정 사모의 이 말은 단지 아름다운 이상이 아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 거리를 좁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장애는 열등함이 아니라, 다름이며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밀알의 친구들에게서 배우고 있다. 작은 친절에 크게 웃고, 소소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는 그들은 오히려 삶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스승과도 같다.

그녀의 삶도 계획한 길은 아니었다. 미국 유학 시절,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꿈꿨다. 그러나 인생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고 어느 날 휠체어를 퀵보드처럼 타고 들어



온 한 남자를 만났다.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고, 목사의 아내가 되었으며 밀알의 친구들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예상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지금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합니다.”

많이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공허하지 않다. 그녀는 말한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더 많이 갖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다.

정재은 사모의 간증은 단지 한 개인의 고백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남을 오해와 두려움 속에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녀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이 되었다.

글 | 뉴욕밀알 홍보부





천국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고엘교회가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밀알 사랑의교실에 참여하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고엘교회는 25년 전 몇몇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컬럼비아대학교 내에서 성경공부를 하다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학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다 보면 마치 작은 버블 안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 울타리 밖의 커뮤니티와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역이 교회지체들의 마음에 와닿고 지속 가능할까 고민하다가 오래 전에 소개로 알게 되었던 밀알선교단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강원호 목사님께서서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밀알선교단의 취지와 사역방향성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약간은 긴장하고 어색한 마음으로 찾아 갔던 것 같은데, 밀알 친구들과의 만남은 저희의 경직된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시절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에서 몇년간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때 기억이 많이 올라오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간 고엘교회 지체들 중에는 이전에 장애인과의 교류를 할 기회가 없었던 형제 자매들이 여럿 있었기에 어떻게 친구들을 대해야 하는지 몰라 긴장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땠는지 대화를 나눠보니 모두가 금방 편해졌다, 밀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재미있었다 등의 피드백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고엘교회에서는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7-10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밀알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간 만들거나 활동

들을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잘 참여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매번 친구들이 너무나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참여해 주어서 준비해 간 저희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함께 찬양할 때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히려 단상 앞으로 나가서 다 같이 울동하고 추임새도 넣고 신나게 찬양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이 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밀알 사랑의교실이 토요일에 만나다 보니 때로는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 중의 바쁜 일상 때문에 다소 지친 상태로 찾아갈 때도 있는데, 밀알친구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들의 순수한 말들 때문에 저희도 함께 웃고, 그들의 기쁜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함께 기뻐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마 6:34)”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다 보면 필요 없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순수한 밀알친구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저희 자신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매 순간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글 | 전은정

(뉴저지밀알 봉사자, 고엘교회 Outreach Team 리더)



| 남가주

2025 사랑의캠프 성료

2025 사랑의캠프가 'Run for the Prize(민음의 경주)'란 주제로 지난 6월26일~28일까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랑의캠프에도 수많은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예배와 성찬식,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약식 철인삼중경기 등 각종 재밌는 게임,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프를 위해 수고한 밀알의 모든 스태프, 봉사자들과 기도로, 물질적 후원으로 사랑의캠프를 성원해주신 밀알 가족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밀알&세계> 8월호에 기재됩니다.

LA 화요예배 (6월)

- 3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의심하지 말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강문구 집사님이, 특송은 문인표 성도님 & 윤모세 목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김동훈 선교사님 가정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6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0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김득삼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도 있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는 전성도 전도사님이, 특송은 석태경 집사님이 수어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옥주파운데이션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 17일: 써니사이드교회 담임목사인 조성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와 특송 친교도 써니사이드교회 성도님들이 섬겨주셨습니다.

OC 목요예배 (6월)

- 5일: 오랜만에 야외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록이 우거진 6월의 맑은 날씨에 OC밀알 가족들이 Neff Historical Park에 모여 이종희 단장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도 듣고 맛있는 바비큐와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 12일: 정승원 전 총신대 교수님이 "무엇이 옳지 아니한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동훈 형제님이, 특송은 신지혁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또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 19일: 이준수 목사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문혜원 사모님이, 특송은 한마음봉사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또 저녁 친교 역시 한마음봉사회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사랑의교실 (6월)

-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각 브랜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했던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 OC: 여러 도전 속에서도 지혜와 인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자들의 밝

은 얼굴과 자발적인 참여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 LA: 한 학기동안 LA Class 버디와 봉사자들과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LA Class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ELA: 한 학기동안 ELA Class에 우리 장애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줄 봉사자들 보내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Torrance: 이번 학기에는 토랜스 버디들과 한층 더 가까워졌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도 주님 안에서 버디들과 봉사자들이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Irvine: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깨닫아 가며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섬겨준 봉사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Adult: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남가주밀알 7월 기도제목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6개 브랜치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 스태프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 가운데 2025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5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북가주

화요예배 (6월)

3일: 임마누엘장로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새누리교회 힐링 하모니 앙상블의 찬양과 특송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섬기던 12학년 친구들이 졸업과 함께 마지막 섬김의 시간이 되어서 함께 감사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 활동도 좋은 만남과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였습니다. 김정기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10일: 밀알에서 비빔밥을 함께 나누며 식사교제를 하였습니다. 6월 생일 자 축하시간에 스티브 형제와 김성준 집사님을 축복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에바다 크로마하프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고, 김정기 목사님이 전도서 12장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17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여 식사교제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을 20여 년동안 성실히 감당해 주신 박석현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예배후에 합심기도하며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4일: 사랑의캠프

산호세 사랑의교실 (6월)

- 밸리크리스찬스쿨과 지역 고등학교의 12학년 친구들의 졸업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장애인 친구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는 성실함을 가진 고마운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가족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14일은 봄학기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학기동안 토요일마다 성실하게 참여해 준 모든 봉사자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21일은 사랑의캠프 봉사자 워십이 있었습니다.
- 26-28일은 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2025년 사랑의 캠프를 열었습니다. 북가주의 밀알친구들과 봉사자들 50명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7월과 8월은 사랑의교실 방학입니다. 개학은 9월 6일입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6월)

-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은 7-8월 방학입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가족 여러분 건강한 여름 보내시지요? 매일 매일의 삶이 주님이 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작고 귀엽고 예쁜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물감을 칠하고 물로 물감을 두들겨서 퍼지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파우치 앞뒤 전체가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었고 보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넓이만큼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여 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렇게 잘 키워주심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써서 파우치와 함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 아버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경 닦는 천(안경닦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좋은 천을 구입하였고, 천에다 염색을 하였습니다. 천을 여러 모양으로 고무볼로 묶고 여러가지 염색 약을 떨어뜨려서 잘 흡수하게 하였습니다. 잘 말려서 다림질하여 아버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더욱 밝은 세상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녀들의 모습에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 방학 중이지만 매일 성경읽기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가볍게 성경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합니다. 날마다 말씀안에서 성장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가주밀알 7월의 기도제목

- 장애인 친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장애인 가정에 평안과 회복이 있도록: 자녀 양육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을 위하여: 청년들과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밀알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의 영적 충만을 위하여: 지지치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위로와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 새롭게 찾아오는 장애인 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관계가 열리고 진심 어린 돌봄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영준목사님(항암), 장연화자매님(재가장애인), 도한철선교사님(루게릭), 로사자매아버지(건강회복), 이은희작가님(신장투석), 윤정환형제, Jean Kim자매(건강회복), 박경화집사님(고관절수술회복), 예진어머니(회복), David Im)
- 장애인에 대한 지역 교회와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다음 세대 리더들의 양성을 위하여: 밀알의 비전을 이어받아 사랑으로 섬길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북가주밀알선교단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도록: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사랑의교실은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캠퍼스에서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브렌든과 자쉬 형제들이 오셔서 실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예배와 크래프트, 음악 수업을 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 랜만에 리치몬드 비치에 가서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탁 트인 태평양 바다를 보니 마음까지도 탁 트이는 듯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유림 자매가 맛있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교실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밀알의 모든 스태프들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 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

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최경애 집사님과 Sunny 님이 귀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식사 후 오오데니파크에 산책을 했습니다. 모처럼 화장하고 맑은 날에 한가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코마 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이소진 집사님의 지도로 재미있는 요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힘든 자세이지만 능숙하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TMA는 예배와 음악수업 점심식사로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낮은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온누리교회, 웨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6월 1일(주일) 오후 5시, 타코마삼일교회에서 '밀알의 사랑이야기'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 올해 여름 캠프는 6월 27일 ~ 29일까지 워비치에서 있습니다. 캠프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 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검도,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분

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 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치료, 요가,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댄스,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心和 간식 제공과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수저, 포크, 냅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S.M.A(화) 와 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해 주세요

- 2025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타코마 송인숙 간사님의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 새로 오신 음악 선생님과 탈춤 선생님을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를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지난 해 가을학기부터 새롭게 시작한 소그룹프로그램은 친구들의 참여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7일과 24일에는 마태복음 7:21을 본문으로 "Who will enter the kingdom of

God?”, 6월 7일에는 요한복음 6:40을 본문으로 “What is the will of God?”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17일 새문안교회(담임목사 김민우), 24일 김병진 대표 가정(크리스천신문), 그리고 6월 7일에는 한교회(담임목사 한기현). 감사합니다.

5월 25일에는 <함께걸음콘서트>를 열었고, 31일에는 <플레이랜드 데이캠프>를 했습니다. 6월 7일에는 생일축하파티, 자모기도회를 했고, 성산청년부가 밀알1일단기선교를 왔습니다. 성산청년부 감사합니다!!

플레이랜드 데이캠프, 함께걸음 평가회

5월 31일 기다리던 <플레이랜드 데이캠프>를 열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시작해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빛나는 가운데 마쳤습니다. 밀알러들이 최고의 집중력을 기울이는 중에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친구들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매년 지원해주는 주님의제자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데이캠프 후에는, <함께걸음콘서트> 평가회와 함께 정말 많이 애쓰는 밀알러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밴쿠버밀알러!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알 여름캠프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미주 서부 지역 밀알 연합캠프인 사랑의캠프(6월26-28일, CSU Long Beach)에 참가하고, 이어서 밴쿠버밀알만의 감동캠프(6월 28일-7월 1일, Riverside & LA)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캠프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러(봉사자) 리크루트

신청: www.vancouvermilal.com -> volunteer / 마감: 8월 21일(금) 24:00

밀알 1일 단기선교

<밀알 1일 단기선교>는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지 않고도,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시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교회나 기관 단체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339-4417).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에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The Prayer’ & ‘The Bridge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에 헌신하

실 분을 찾아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월 \$10(한 구좌) 정기후원하실 분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구좌를 맡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와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 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소서.
-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지역교회 및 관심 있는 그룹들과 장애인 ‘선교’하는 밀알사역을 나누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옵소서.
-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소서.
- 2025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그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하소서.
- 기도와 성령으로 섬기는 밀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밀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밀알,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굿즈프로젝트 <투게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사역에 인적, 물질 힘을 더하는 결과를 주옵소서.
- <밴쿠버밀알러프로젝트: ‘꿈너머 꿈’> 조직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연결이 잘 되게 하시어, 하나님나라의 꿈을 향해 나아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
- 재즈페스티벌과 사생대회 밀알러 피크닉 등 썸머 아웃팅, 비전팀 리드릿과 발룬티어 리크루트와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2025-26학년도 사랑의교실 및 이벤트 준비 등이 주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언어활동을 하고, Gym으로 옮겨 가서 발달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Art & Craft로 표현하면서 배운 말씀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커리로 섬겨 주셨고, 3일에는 봉사자로 섬기고 있는 경우, 승우 서연의 가정에서, 10일에는 달라스침빛교회에서, 17일에는 조이풀교회에서 그리고 24일에는 라이트하우스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점심을 섬겨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임정정 전도사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815-6211, txmilal@gmail.com

여름 방학 시작

텍사스밀알 사랑의교실, 밀알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사역이 여름 방학을 갖습니다. 8월에 다시 만나요.

여름성경학교

텍사스밀알은 여름방학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5개 교회(세미한, 뉴송, 제자침례, 베다니, 영락장로교회)와 함께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소원하며, 지역교회가 하루를 장애인선교를 위해 단기선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주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1:1 자원봉사자 모집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1:1 로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토요 사랑의교실(9:30-1:30), DMA(목요일 10:30-1:30), 오케스트라(토요일 1:30-3:00)에서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밀알선교단으로 문의주세요. (267-467-5971)

교사, 자원봉사자 모집

-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사랑의교실에 교사로 섬겨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원하세요.
- 매주 목요일 10:30-3:15에 진행되는 밀알 아카데미에 미술과 음악, 그리고 스포츠 교사로 섬겨주실 분을 찾습니다
- 매주 토요일 1:30에 진행되는 밀알 오케스트라에 피아노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전공하셨거나 오랫동안 연주하신 분을 기다립니다. 더불어 오케스트라 5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현악, 관악, 타악, 밴드 등 여러분의 재능을 함께 나눠주세요.

기도합니다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밀알 여름성경학교를 잘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교실을 포함 모든 사역에 교사, 봉사자를 세워주소서, 더불어 지금의 봉사자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 가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이 잘 펼쳐지는 사역이 준비되게 하소서
-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재정을 허락하시고, 재정 확보를 위한 지혜를 주소서

재정보고 2025년 5월

| 남가주

■ INCOME: \$86,356.53

Individual: \$10,181.00 \$30 Youn G Ro / \$50 David S Shin, Hye Ran Lee, Jaebine Song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Hyun Suk Jin, June Sin, Sung Jin Kim / \$200 Jaemin Youk, Jun-Yeon Lee & Sun Young Jung, Mi Sup Lee / \$201 Missionary Deborah / \$300 Eun Chul Lee & SoonHee Lee, Won H. & Song S. Sunu, Yoon Ho Kang & Gi Sook Kang / \$400 Keun Suk Park, Kyung Won & Sang Mi Kang / \$500 Steven Chul Kim / \$1,000 Inju Uyehara, Anonymous / \$1,200 Hye Jeong Lee / \$1,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 \$2,000 Yong Gyu & Heakyung Jeon

Church & Business: \$10,920 \$100 Salt Covenant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ankcard Services,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LA Mission Church of Hope,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Living Water Mission Church, Wisdom Daycare / \$220 Bethel Korean Church / \$3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 California, The First P.C. of OC, The Lord's Community Church / \$400 God's Righteousness Church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 \$750 Good Stewards Church / \$900 Las Vegas Vision Church, World Mission Church / \$1,000 Hyung Je Pre. Church of S.C, James Worldwide Inc, New Life Korean Church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65,255.53 \$50 Fidelity Charitable / \$2,235 Designated for Rent / \$100 Yuri Yi for Class AGAPE LA / \$7,800 Love Festival / \$22,078 Camp Fundraising / \$21,192.53 Camp AGAPE Fees / \$10,300 Camp AGAPE Donations(\$300 Mams Catering, \$500 Gloria, \$500 Jee Kook & Young Wha Huh, \$1,000 Jaemin Youk, \$1,500 Grace Mission University, \$1,500 Yumita, \$5,000 Good Community Church of Torrance) / \$1,000 Thursday Worship(\$300 Mi Sup Lee, \$300 Oh Bun Kim, \$400 Eun Chul & Soon Hee Lee) / \$500 Daniel & Jin Sook Lee for Class AGAPE Adult

■ EXPENSE: \$116,021.98

Class AGAPE: \$4,171.64 \$953.73 Class Meals & Snacks / \$513.36 Class Materials & Supplies / \$1,004.55 Events & Meetings / \$1,700 Gift for teachers

Camp AGAPE: \$56,729.74 \$54,165 Venues / \$1,921.80 Transportation / \$151.15 Camp Supplies / \$491.79 Pre-camp Expenses

Love Festival: \$19,234.89

Media Mission: \$3,579.83 \$1,375 M & W Publication / \$657.83 Magazine Shipping & Handling / \$1,547 Supplies

Charitable Supports: \$1,771.99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41.99 Birthdays / \$200 Ruah Art Center / \$200 Altogether in Love / \$100 Tuesday Worship / \$280 Thursday Worship / \$150 Congrat flower for Pastor Kim

Fundraising Expense: \$12,550.30 \$11,954.09 Merchandise (Beef Jerky, Cham Ki Leum, Hazelnut Coffeebeans) / \$596.21

Packaging supplies

Payroll Expense: \$8,827.89 \$5,508.25 Salaries & Wages / \$524.64 Payroll Tax / \$800 Employee Benefit / \$1,99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8,584.01 \$6,374.83 Rent / \$150.57 Woongjin / \$331.50 FBM / \$136.78 Telephone & Internet / \$334.57 Electricity / \$950.76 Alliance Fee / \$67 Office Meals / \$25 Bank Charges / \$213 SBA EIDL Interest

Auto Expense: \$571.69 \$471.69 Gas / \$100 Maintenance

Previous Carry over Balance: \$69,491.42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0,174.03
(Transferred \$60,000 to Scholarship Account)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1,300.00 <Church & Business \$600: \$300 Irvine Onnuri Church> <Specials & designated \$1,000: Julianne Lee designated for Jonghoon Lee>

EXPENSE: \$16,390.12 <Class AGAPE \$4,962.12: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11,428: \$2,100 Collegians / \$900 Volunteer Aids / \$1,000 Designated to Jong Hoon Lee / \$6,228 Reserved Ministers Supports / \$1,200 Third Countries>

Previous Carry over Balance: \$21,906.41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6,816.29
(Transferred \$60,000 from General Account)

| 북가주

■ INCOME: \$45,011.48

Individuals: \$2,330.00 \$40 김신자, 김애경 / \$50 김성준, 김은혜, 나정화, 이우성, 정찬미&이석권 / \$100 Klepeis Family, 김만종 & 정애, 김유진, 한의상&미성 / \$200 최영훈&재현 / \$300 김정기 & 남경아, 오영수, Aaron Fukuoka / \$500 차현상&김은미

Church & Business: \$9,160.48 \$57 새소망교회 / \$100 브루스 리미용실,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 \$113.48 IBM / \$180 시온영락교회(밀알목장) / \$200 이스트베이한빛교회, The Light of Christ Church / \$300 심포니교회 / \$310 베델연합감리교회 / \$600 임마누엘장로교회(밀알목장), SF사랑의교회 / \$1,000 몬트레이한인침례교회, 좋은땅교회 / \$2,000 살리나스영광교회 / \$2,400 몬트레이중앙장로교회

Designated Donation: \$33,521.00 <사랑의교실 \$300: \$100 김정기&남경아 / \$200 안수빈&예빈가정> <청년밀알 \$500: \$100 마이클가정, Chanwook Kim / \$300 엠마오선교> <화요예배 \$420: \$100 김정기&남경아, 권유진&이강진 / \$220 전송화> <사랑의캠프 \$12,301: \$150 Klepeis Family / \$300 공은정&명진 / \$6,830 참가비 / \$5,021 참가료판매수익금> <차량지정후원금 \$20,000: 좋은땅교회>

■ EXPENSE: \$38,373.30

Mission Expense: \$14,207.06 사례비(5인) \$7,010.42 / 선교활동비 \$307.66 / 미주밀알지원 \$533.42 / 은급비 \$300 / 사랑의교실 \$56.85 / 화요예배 \$364.89 / 사랑의캠프 \$4,835.44 (참가비 \$1,750, 항공권 \$3,085.44) / 소풍 \$798.38

Administration & Management: \$2,467.17 사무용품 \$23.96 / 유틸리티 \$151.42 / IRS Tax \$489.54 / 사무실 임대료 \$1,400 / 수수료 \$2.25 / 회계사(2024) \$400

Auto Expense: \$333.99 유류비 \$304.04 / 세차 \$29.95
Media Mission: \$1,365.08 밀알&세계 발송비 \$308.36 / 밀알 &세계 인쇄비 \$972.40 / 웹페이지 사용료 \$84.32

CD(Designated): \$20,000.00 지정후원금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30,791.0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37,429.21

| 시애틀

■ **INCOME: \$23,255.00**

Individuals: \$2,830.00 \$30 남숙희 / \$50 박진경, 이영자, 조성배, 오수미 / \$100 송인숙, 경자훈, 노현숙, 김복조, 김해정, 류준명, 함월선, 윤태준&이정주 / \$200 조천석 / \$400 장영준&장아련 / \$500 배일경 / \$700 이명운

Churches: \$3,050.00 \$100 순복음 큰빛교회,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 화평교회, 타코마삼일교회, 퓨얼럽한인장로교회 / \$150 페더럴웨이 벨엔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중앙장로교회 / \$300 타코마한인장로교회 / \$4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 \$600 페더럴웨이선교교회 / \$800 시애틀행복한교회

Businesses: \$400.00 \$100 임학수CPA / \$300 Fair Ridge Law Firm

Designated Donation: \$16,975.00 \$2,520 SMA&TMA / \$12,755 Fundraising(참기름) / \$200 사랑의캠프 회비 / \$1,500 사랑의캠프 후원 (\$500 CDS, \$1,000 최지은)

■ **EXPENSE: \$13,294.07**

Mission Expense \$3,655.51 / Admin & Management \$3,094.59 / Media Mission \$1,435.50 / Class AGAPE \$910.11 / Dues to LA \$400.20 / SMA&TMA \$831.08 / Outreach & Retreat \$1,000 / Tax \$447.97 / Special event \$200 / Agape Camp \$100 / Insurances \$435.22 / Pastoral Visit \$483.89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63,561.1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73,522.11

| 밴쿠버

■ **INCOME \$21,391.00**

Individuals: \$1,840.00 \$10 김다현,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정미영, 김성은 / \$30 원소현, 테레사차, 정승식 / \$50 이해영, 오정석, 강시영, 이재림 / \$100 이덕재, 김계은, 이상현유혜정 / \$200 하준석, 윤영로, 김타숙 / \$500 홍사랑

Church & Business: \$3,200.00 \$100 헤브론교회 / \$200 오로니아, 러브밴쿠버(WJD Foundation, 4월), 러브밴쿠버(WJD Foundation, 5월) / \$300 삼성교회(2/4) / \$1,000 밴쿠버중앙장로교회 / \$1,200 은혜의교회(2/4)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16,351.00 <5월 사랑의 교실예배헌금 \$461: \$10 윤관진 / \$20 장민음, 이해, 봉에드윈, 김도건, 오예찬, 김해빈, 김바롬 / \$40 김민재 / \$50 이에담 / \$60 박수영, 서창성 / \$100 이호재 / \$1 무명> <designated \$500: Coram Deo(5월)> <플레이랜드 참가비 \$840:> <여름캠프항공료 \$2,100> <함께걸음콘서트 \$12,450: 티켓 \$2,800 / \$50 권혁근 / \$100 김타숙, 길벗교회안직선 / \$300 김정화치과, 남상국, Koinonia Korean Church / \$500 이경창회계사무소, 로얄캐네디언, 김형윤김계은 /

\$1,000 코람데오 파운데이션, 그레이스한인교회, \$1,000 이민형 (Arete Centre) / \$2,000 밴쿠버중앙장로교회, 포터스플레이스>

■ **EXPENSE: \$14,483.68**

Payrolls: \$4,133.22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52.65 활동비

Events: \$8,266.83 <함께걸음콘서트 \$2,113.06: 준비활동 및 감사 \$161.15 / 프로그램북 \$403.20 / 와이어리스마이크 \$168 / Video \$300, 디자인 \$300 / 비전팀 디브리프미팅 \$163.07 / 평가회 및 위로회 \$617.64> <마달스데이 티파티 \$142.30: 팀커피 \$41.98 / 재료비 \$100.32> <LA캠프 항공료 \$4,154.87> <플레이랜드 데이 캠프 \$1,856.60: 티켓 \$1,193.80 / 런치 \$647.45 / 파킹 \$15.35>

Class AGAPE: \$173.59 통신비 \$61.60 / 짐운반액건 \$111.99

Admin & Management: \$77.20 통신비 \$67.20 / 은행 fee \$10

Taxes: \$486.65 payroll(5월)

Auto Expense: \$793.54 뱅할부금(5월) \$429.54 / 운행비 \$364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5월)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3,151.4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0,058.80

| 텍사스

■ **INCOME: \$8,304.39**

Individuals: \$675.00 \$25 방진원 / \$50 김태남&이선화, 김희경, 정선혜 / \$80 정호영 / \$100 이인성 & 임지선 / \$320 채경수

Church & Business: \$1,657.39 \$7.39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드위스제일장로교회 / \$100 빛과소금의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JDX Mission, 나눔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제자침례교회, 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 / \$300 주님의교회

Designated Donation: \$5,972.00 <사랑의교실: \$50 임현정 / \$100 무명 / \$120 VBS 등록비 / \$160 FENY R&D LLC / \$200 Daniel Yoon>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구본진, 손유진 / \$200 신이철, 이주영, 장애인체육회 / \$500 DK Foundation / \$1,000 세미한교회 / \$1,442 카드판매> <장소사용후원: \$600 한우리교회> <장애인장학금: \$1,000 DK Foundation>

Food Support: Escape Bakery, 건우승우서연 가정, 달라스참빛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조이풀교회

■ **EXPENSE: \$6,289.13**

Mission Expense: \$4,366.43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350 / 지단상회비 \$129.09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500 / 단장활동비 \$14.07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979.41 사랑의교실 점심재료 \$53.88 / 직업재활 \$85.50 / 지휘자 및 연주자 사례 \$350 / 감사헌금 \$100 / 오케스트라 교사 식사 \$90.06 / 그림카드 제작 \$299.97

Admin & Management: \$943.29 장소사용료 \$200 / 은행, 카드 수수료 등 \$83.38 / IRA Tax \$229.50 / 통신비 \$240.42 / NTTA Toll \$160 / 프린터 잉크 \$29.99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8,002.97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0,018.23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걸,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ป์,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실행단원() 후원단원() 월 \$5() \$10() \$20() \$30() \$50() \$100() 그외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현재는 Zoom으로 드리는 월례기도회로 대체)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렌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wheat@yahoo.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밴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턴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